도 삼락농정위, 협치 농정체계 정착

제1기 2년 임기 만료… 농림축산식품부 등 전국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 거둬

전북도 제1기 삼락농정위원회가 올 연말 2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군·유관기관 등 관계자들과 함께 2년간 활동상황과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전북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의 핵심주체인 삼락농정위원회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협치 농정 체계로 정착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제1기 삼락농정위원회가 올 연말 2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도, 시.군, 유관기관 등 관계자들과 함께 2년간 활동상황과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2년 동안 삼락농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위원회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자 3명을 표창했고, 향후 지속 발전 가능한 위원회 운영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제1기 위원회는 농업인 중심으로 전문가, 행정 등 142명을 위원으로 구성해 지난해 2월 27일 출범했다. 운영협의회와 10개 분과회의, 삼락농정 포럼 등 각 분야별로 2년 동안 117회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전북도 각종위원회 중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한 위원회로 나타났다.

운영협의회는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마련했고, 포럼 운영사항 및 각 분과 제안사항을 종합 조정하고 삼락농정 대표사업과제 선정, 핵심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10개 분과회의는 107회 회의를 통해 분야별 정책방향 및 현장 중심의 사업을 발굴, 예산에 반영하고 분야별 2020 목표 및 실천계획 수립, 농업 현장방문, 관련법률·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삼락농정 포럼은 2015년 분과회의 주관으로 8개 주제를 선정해 특성에 맞는 지역(시·군)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주제별 문제점과 해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올해는 포럼 3개 주제별로 2차에 거친 전문가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해 정책 제안의 완성도를 높여 전북농정 방향 설정과 정책 도입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러한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튼튼한 밑거름이 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고능력 암소축군조성, '삼락농정 농업人·농촌in 수상작 전시회' 등 차별화된 시책을 전국 최초로 발굴 시행함으로써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도입,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생마을 만들기로 농촌공동체를 회복하여 활력 있고 살고싶은 농촌을 만들어 가고 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제1기 삼락농정위원회가 어려운 농업 여건에서도 위원들 모두가 열정적으로 참여해 2년동안 많은 성과를 올렸다"면서, "제2기 위원회에서는 농민.도민과 함께 하고 공감하는 삼락농정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삼락농정의 차별화된 정책을 인정받아 지속발전가능 대상 최우수,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평가 최우수, 대한민국 우수 축산물 브랜드 명품인증, 전국농산시책 평가 최우수 등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역발전위원회 등 전국단위 평가에서 삼락농정이 성과를 정착시키고 있다.

/안재용 기자

산지 쌀값 상승세 전환

15일 현재 80kg당 12만8852원… 전회 대비 0.4%↑

하락세를 거듭하던 쌀값이 수확기 이후 최초로 상승세로 전환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5일 현재 쌀값은 80kg당 12만8852원으로 전회 대비 0.4% 상승했다.

이는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이 대부분 완료되고 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민간의 매입도 확대되는 등 수급안정 노력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상승세로 전환됐다고는 하나 지난해 같은 기간(14만7,816원)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반등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올해산 공공비축 산물벼 8만2200톤 전량을 정부로 조기에 이관하는 한편 특별재고관리대책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쌀 부정유통 단속도 실시하는 한편 유통업체의 할인판매 자제와 우리쌀 소비 확대를 당부했다. /안재용 기자

도, 내년 농기계종합보험료 75% 지원

전북도가 내년부터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농가에 대해 75%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농가는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별도 지방비 신청 없이 국비를 포함해 지방비까지 총 75%를 지원 받게 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그동안 국비 50%만 지원해 많은 농가가 신청을 꺼렸으나 이제는 지방비 25%를 추가 지원받게 돼 가입 농가가 늘 전망이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이며, 보험 신청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전북도, 재해대책 유공 기관표창 수상

전북도가 재해대책추진 유공으로 국민안전처로부터 유공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유공 기관 선정은 2015년 겨울철 사전대비 및 대책기간 중 인명피해 예방활동과 자연재난대책 추진이 우수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특히 올 초 도내 평균적설량 18.1㎝를 기록한 대설기간 중 정읍과 고창에 발생한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피해에 전북도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피해농가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피해농가의 조기 생활안정에 기여한 공이 높이 평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는 도로 정체, 고립 등으로 인한 도민불편 해소와 비닐하우스 등 농.축.수산시설물 피해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 중이며, 한발 앞선 재난대비 및 신속한 제설.한파 대응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안재용 기자

전북도, '동부권 발전위원회' 개최

위촉직 위원 위촉장 수여 · 16개 사업 시행계획 심의 · 종합적 발전방안 논의

동부권 지역의 발전방안 모색과 2017년 시군별 주요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위해 전북도는 21일 '전북 동부권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동부권발전위원회 재구성에 따른 위촉직 위원 위촉장 수여, 2011년부터 시작된 동부권 발전사업의 성과 및 활성화 방안 보고, 평가시스템 도입계획 및 평가지표 심의, 내년에 추진되는 16개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심의에 이어 종합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신규로 위촉된 위원은 지역의 실정에 밝은 동부권 지역의 도의원이 종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돼 사업의 선정.심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날 보고 안건 중 '동부권 발전사업 평가시스템 도입 계획'에 대해 대부분의 참석위원들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성에 공감하며,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해 시군간 경쟁체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방법은 식품과 관광으로 특화된 동부권 발전사업 특성상 평가지표, 평가위원 구성은 식품과 관광을 별도로 분리해 내년 1/4분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동부권 지역의 위촉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최영일 도의원(순창군)은 "평가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 시군의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이나 미흡한 시군의 페널티 부여가 필요하지만, 동부권 도의원 및 시군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의 국토연구원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제2차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착수 내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번 용역을 통해 지금까지의 동부권 특별회계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및 진단과 동부권에 특화된 국책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재정투입 방법, 역점 추진사업의 변화, 2020년까지의 특별회계 종료 이후의 지원계획 등 새로운 동부권 발전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 추진하게 될 총 16개 사업에 대한 시군별 세부추진계획 심의를 통해 부진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동부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올해는 동부권 발전을 위해 '동부권 순회 정책 간담회 개최', 추진실태의 전문가 합동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국책사업 발굴 등 어느 해보다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며, "발굴된 사업들이 2018년 국가예산 확보, 공모사업 응모시 선정에 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평가 및 추진상황 점검 등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도 정기인사 중폭 규모 이뤄질 듯

전북도의 정기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당초 예상됐던 인사 폭이 대폭이 아닌 중폭 규모로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주부터 국장급과 부단체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정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승진 요인과 파견자 복귀 등 변수가 산재해 있고, 조직 개편안과도 맞물려 있어 중폭 정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먼저 3급에 해당되는 부이사관의 경우 총 4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또 파견 직원 복직 여부도 눈여겨볼 사안이다. 현재 도는 3급 파견 직원은 전원 복직시키고, 4급 이하에 대해서는 각종 상황을 고려해 일부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번 인사에서는 8곳의 부단체장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안재용 기자